



# (주)성지 경기 화성

“외국인근로자와 상생하는 7가지 노력”

창사 23년 이래 (주)성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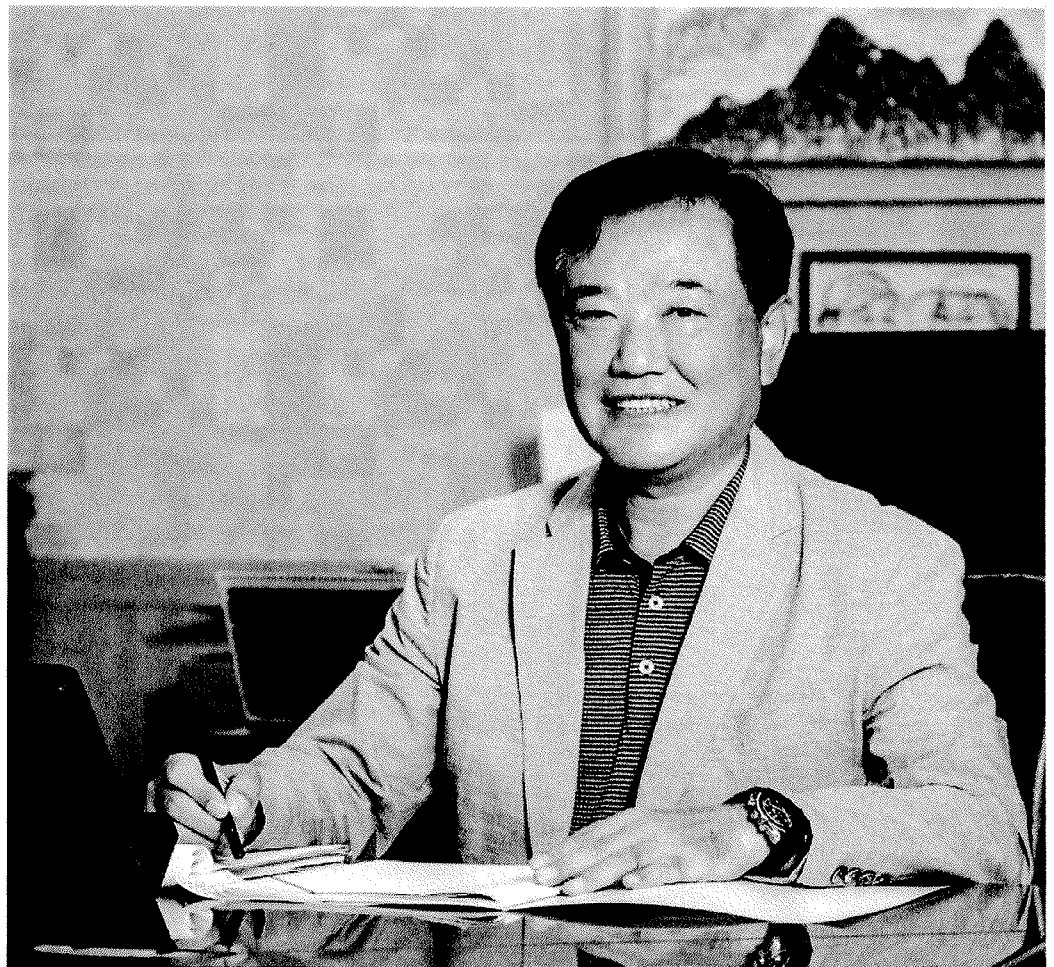
10여 개국의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외국인 직원과의 소통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동안 지내 온 경험을 통해

(주)성지는 외국인 직원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외국인근로자와 상생하는 (주)성지만의 노하우를 함께 들어본다.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사업장 부문 우수상

함께 고생해준 외국인근로자들 덕분에  
(주)성지가 2008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주)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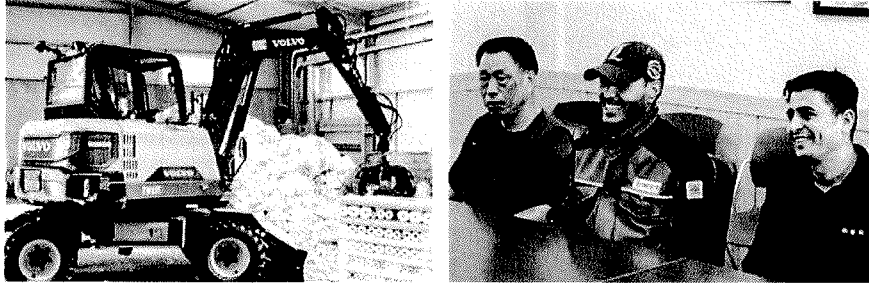
2008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주)성지가  
외국인 근로자와의 상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낯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로테이션 근무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하고, 업무 외적으로는 부산 해운대,  
서울 전쟁기념관, 용인 한국민속촌 등에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둘째, 각자 하나 이상의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 왔기 때문에  
근무 초기에는 기계나 장비 운용을 어려워합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귀국 시에는 하나의 기술을 완벽히 익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셋째, 늘 고향과 가족이 그리울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혜택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락한 기숙사를 신축하고, 여가 시간에는 한국어 공부를 돕거나  
회의실을 영화관으로 쓰게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 식당과 주말농장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날 급여를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고향에 집을 짓거나 땅을 살 때 회사에서 금전 대출을 진행합니다.  
 또한, E-9에서 E-7-4로 비자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학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 구성원을 가족처럼 느낄 수 있도록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생일, 명절, 자녀 입학 등 소중한 순간을 함께 축하합니다.  
 특히,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전 임직원이 함께 약 200만 원의 복구 성금을  
 네팔 대사관에 전달하는 등 어려운 순간에도 외면하지 않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섯째, 우수한 성과를 냈다면 포상과 함께 직책을 부여하며,  
 귀국 시에는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기념 선물을 제공합니다.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근로자는 (주)성지 명예의 전당에 공적을 기록해  
 동료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귀국 후에도 우리 회사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본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응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주)성지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2008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주)성지는 외국인근로자를 항상 존중, 배려하며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

\* 본 내용은 사업장의 수기 사례 및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재가공되었습니다.